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키움증권

미 증시, 미-이란 군사 갈등, 글로벌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일(화) 미국 증시는 ISM 제조업 PMI 부진 속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에 따른 WTI 유가 90달러 돌파, 미국 10년물 금리 4.8%대 돌파 등 유가 및 금리 급등 부담이 엔비디아(-1.5%), 마이크론(-2.6%)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다우 -0.8%, S&P500 -0.7%, 나스닥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유가, 금리 등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정적인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 WTI는 7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대에 재진입했으며, 주요국 재정 불안과 맞물린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미 10년물 금리는 장중 4.8%대를 터치했던 상태. 물론 베센트 재무 장관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유가, 금리의 특정 레벨 도달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당분간 미-이란 갈등 완화 여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장기물 시장금리 안정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구간인 것은 사실.

하지만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의 TACO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시점. 또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 미 10년물 금리 5.0%대 진입 확률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 점도 마찬가지(8월 19일 블룸버그 설문 상, 미 10년물 금리 5.0% 돌파 시점, 9월 중 22%, 4분기 중 38% 응답). 결국 현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크로 불확실성 구간이기에, 기존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관망 혹은 추가 급락 시 분할 매수를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미국 금리 및 유가 상승 여파로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8월 수출 호조 속 자사주 매입 효과 등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전약후강의 장세로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1.6%).

금일에는 유가 및 금리 상승 부담, 코스피200 야간선물 3%대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할 전망. 다만, 장중 저가 매수에 유입, AI서버 매출 호조발 어닝서프라이즈를 시현한 델의 시간외 주가 6%대 급등과 같은 재료에 반응하면서 낙폭을 줄여 나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코스피에서 발생한 특이한 수급 현상은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2거래일 누적 -1.1조원, 개인(-0.7조원), 기관(-1.4조원) 이 세 주체가 동시에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것임. 이들 세 주체의 물량은 기타법인(+3.3조원)이 대부분 받아냈으며, 이 기타법인의 순매수 급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서 기인.

일단 이들 자사주 매입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은 중립 이상의 요인. 현재 금액 기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진행률(200만주, 15조원)의 약 23.8%(3.6조원 vs 잔여물량 11.4조원)를 집행했으며, SK하이닉스(65만주, 40조원)는 약 24.4%(9.7조원 vs 잔여물량 30.3조원)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

물론 이들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탄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손실 회피, 본전 매도), 기관(포지션 조정), 외국인(차익실현 및 매크로 위험 헤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이기는 함. 그럼에도 현재 자사주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 시, 3분기 실적시즌 전까지(10월 중순) 한달 정도의

수급 안전판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현재 주가 및 일간 매수량 유지 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종료일은 10월 8일, SK하이닉스는 10월 16일로 추정).

이처럼 자사주를 제외한 수급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펀더멘털은 별 다른 훼손 없이 견조하다 점이 안도 요인. 일례로, 8월 수출(YoY, 68.7% vs 컨센 62.6%)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YoY, 7월 +178.0% → 8월 +209.0%)의 모멘텀은 한층 더 강화됐으며, SSD 중심의 컴퓨터 수출(YoY, 7월 +402.2% → 8월 +419.5%)도 급증.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수출과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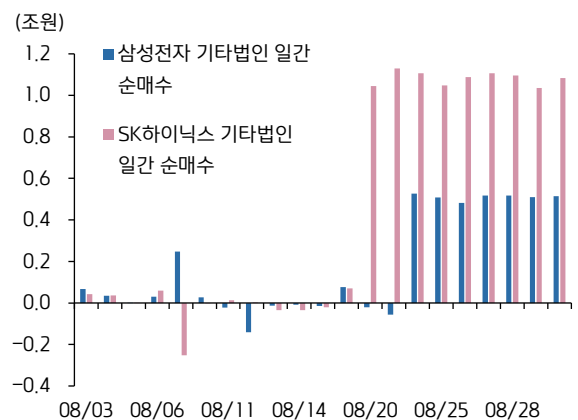
DDR5(MoM, 7월 +12.5% → 8월 +3.3%), NAND(7월 +4.5% → 8월 +1.3%)의 고정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점은 부담일 수 있음. 다만, 7월 중 반도체의 주가 급락을 통해 상당부분 소화한 측면이 존재. 뿐만 아니라, 전력기기(7월 +13.9% → 8월 +16.2%), 화장품(7월 +37.8% → 8월 +52.1%) 등 14개 품목(총 20개)이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 결국 8월 수출은 반도체의 이익 지속력과 비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판단. 추후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더라도, 높은 수출 레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한 증시 하방 경직성은 유효할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현황: 현재 진행률이 이어진다고 가정 시, 예상 자사주 매입 만료일은 10월 중순. 적어도 한달 정도는 수급 안전판을 확보하고 갈 수 있음을 시사

구분	내용(9월 1일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시	자사주 매입 신청수량	200만주	65만주
	자사주 매입 총금액	15조원	40조원
	공시상 만료일	11월 21일	11월 19일
실제	자사주 집행 추정금액	3.6조원	9.7조원
	잔여 금액	11.4조원	30.3조원
	경과기간	7거래일	9거래일
	금액기준 진행률	23.8%	24.4%
	현재 주가 및 일간 매수량 유지 시 예상 만료일	10월 8일	10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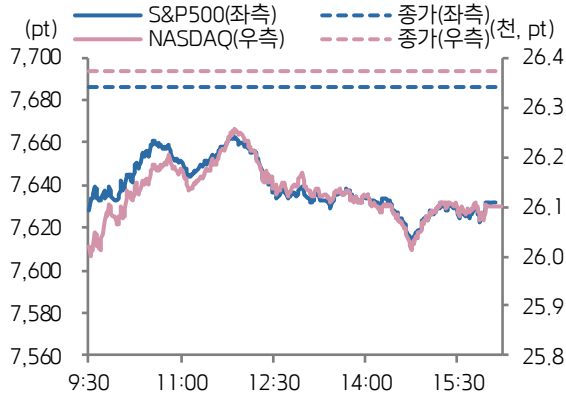
출처: DART,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타법인 순매수: 8월 중순 이후 기타법인 순매수 급증. 사실상 자사주 매입 물량이 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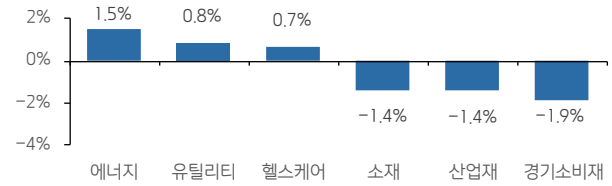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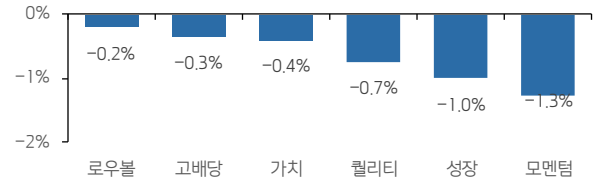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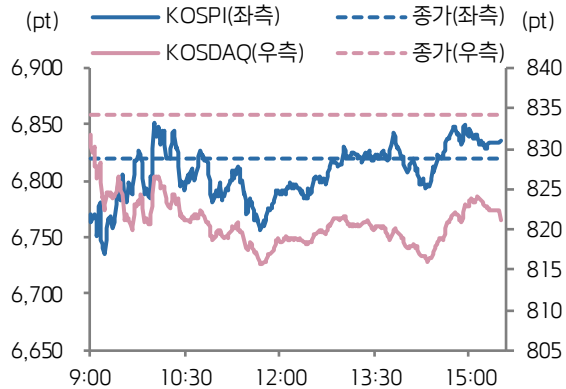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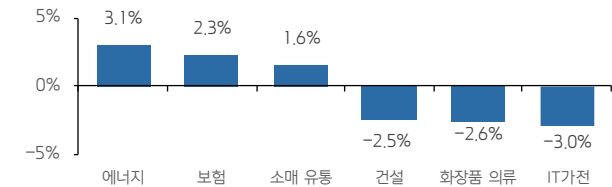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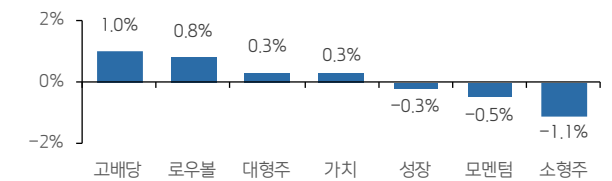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25.13	+2.61%	+19.59%	GM	85.63	-0.8%	+5.3%
마이크로소프트	501.02	-1.24%	+3.6%	일라이릴리	1,160.00	+0.28%	+7.94%
알파벳	335.02	-1.28%	+7.04%	월마트	105.92	+1%	-4.93%
메타	578.54	+1.08%	-12.35%	JP모건	354.95	-0.3%	+10.16%
아마존	254.92	-1.87%	+10.44%	엑손모빌	164.55	+2.24%	+36.74%
테슬라	356.09	-3.22%	-20.82%	세브론	211.05	+2.38%	+38.48%
엔비디아	217.44	-1.51%	+16.59%	제너럴일렉트릭	105.92	+1%	-4.9%
브로드컴	369.68	-0.18%	+6.81%	캐터필러	779.16	-2.3%	+36.01%
AMD	459.61	-2.36%	+114.61%	보잉	205.66	-1.02%	-5.28%
마이크론	933.44	-2.64%	+227.05%	넥스트에라	82.93	+0.7%	+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835.80	+0.23%	+62.21%	USD/KRW	1,372.80	+0.32%	-4.63%
코스피200	1,075.30	+0.32%	+77.45%	달러 지수	99.67	+0.24%	+1.37%
코스닥	821.25	-1.56%	-11.26%	EUR/USD	1.16	-0.22%	-1.3%
코스닥150	1,410.05	-2.35%	-8.87%	USD/CNH	6.72	+0.06%	-3.64%
S&P500	7,631.47	-0.71%	+11.48%	USD/JPY	160.18	+0.28%	+2.21%
NASDAQ	26,099.77	-1.03%	+12.3%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766.88	-0.79%	+9.79%	국고채 3년	3.879	+3.9bp	+92.8bp
VIX	16.34	+9.52%	+9.3%	국고채 10년	4.370	+6bp	+98.5bp
러셀2000	2,920.13	-1.23%	+17.66%	미국 국채 2년	4.400	+5.8bp	+92.7bp
필라. 반도체	11,288.61	-2.14%	+59.37%	미국 국채 10년	4.798	+4.8bp	+63.1bp
다우 운송	20,767.36	-2.51%	+19.65%	미국 국채 30년	5.273	+3.1bp	+42.9bp
상해종합	3,979.89	-0.16%	+0.28%	독일 국채 10년	3.344	+2bp	+48.9bp
항생 H	8,462.64	-0.59%	-5.0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944.28	-0.02%	-9.71%	WTI	90.22	+5.2%	+58.42%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4.65	+4.6%	+55.55%
Eurostoxx50	6,368.98	-0.8%	+9.97%	금	4,396.40	-1.9%	-2.25%
MSCI 전세계 지수	1,142.73	-0.56%	+12.63%	은	64.62	-2.42%	-8.48%
MSCI DM 지수	4,932.94	-0.7%	+11.34%	구리	650.65	-1.32%	+14.51%
MSCI EM 지수	1,727.35	+0.47%	+23%	BDI	3,186.00	+2.54%	+69.74%
MSCI 한국 ETF	175.80	-2.8%	+80.83%	옥수수	546.00	+1.53%	+18.57%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82.50	+1.1%	+38.56%
비트코인	77,413.85	-1.83%	-11.68%	대두	1,317.75	+2.31%	+23.79%
이더리움	2,420.18	-2.12%	-18.72%	커피	309.45	-0.66%	-1.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